

오순절 후 스물세 번째 / 종교개혁 504주년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10월 3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4 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 58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3 번 종교개혁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28:16-20	이기울 집사
찬 양 Anthem	“하늘 아버지 지켜주시네”	찬양대
설 교 Sermon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hem to Obey)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77 장 “예수 따라가며” (새 44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성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우리는 자주 세상과 타협했고,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언급하면서도,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고,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떠올리며,

날마다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글개역 마28:20)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NIV Matthew 28:2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31 (주일)	11/1 (월)	11/2 (화)	11/3 (수)	11/4 (목)	11/5 (금)	11/6 (토)
	왕하13	왕하14	왕하15	왕하16	왕하17	왕하18	왕하19
본문	딤후3 호5,6	딤후4 호7	딤후1 호8	딤후2 호9	딤후3 호10	몬1 호11	히1 호12
	시119:145-176	시120-122	시123-125	시126-128	시129-131	시132-134	시135,136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3 오후7:30)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삿331-43)
토요 새벽기도회 (11/6 오전6:30)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 58:1-11)

지난 주일(10/24) 말씀

전도의 8가지 습관 (5) – “복음이 드러나는 정의”(레 25:1-13)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이 왜 중요하며? 왜 지켜야 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종일 땅을 흘리며, 수고로이 농사를 짓고도, 제대로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무려)1년 이상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안되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레25:2)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정의’는 1)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정의이고(레25:9-10상), 2)회복시키는 정의이며(레25:13), 3)사랑으로 역사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와 구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은 항상 정의로우셨지만, 동시에 항상 사랑이 풍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에서도 복음의 복된 소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이 드러나는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